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지혜시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교훈시로 구별됩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의 앞부분을 읽으면, 마치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인생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전도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두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을 의면한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무리 허잖아 보이는 일도 귀한 일이 되요!) 둘째로는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복되다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말합니다. 히브리말로 [벤] 아들, [바트] 딸, 그리고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데 이 세 단어는 모두 [바나] ‘세우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아들, 딸, 집...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거죠! 돌과 목재가 건물을 이루는 것과 같이 실제로 아들과 딸이 집안을 세우고 가정을 이룬다는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성은 직접적으로는 성읍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성내의 모든 통치 질서, 인간 관계를 말해요.

다시말해서 가정과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헛되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시편은 솔로몬 시편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자기 스스로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각자 처소에서 섬기게 해 주었고,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음에도 그는 집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로움을 한때 다 가졌다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집(가정, 국가,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세운다할지라도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세계 명작 중 하나인 '벤허'의 저자 '류 윌리스'는 본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하루는 그가 작품의 소재를 찾던 중에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예수의 생애에 흥미 있는 사랑 이야기가 있을 법하니 까 이를 작품화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여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일 처음의 의도를 버리고 '벤허'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내용의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났고, 그 예수께서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매사에 동행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사모해야 할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2.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일이든 헛된일에 불과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식량, 혹은 댓가를 의미해요. 노동의 댓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댓가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없이 게으르게 살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며,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뜬금없이 잠을 주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일할 때도 즐겁고, 설교를 들을 때도 즐겁고 한 것을,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하시나봐요! 하시면 곤란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기서 '잠'이란 말은 나태함/나른함을 의미하지 않고, 잠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게되는 평화로움/쉼을 뜻합니다. 잠[쉬나] 평안함/휴식/소생케됨/'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 을 의미/새로운 소망!

또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잠 잘 때에도.' 원어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해석이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잠을 주신다' '2.잘때도 베푸신다'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케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소생케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3.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직역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하리] 즉, 유산, 소유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또한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

급'이라는 말은 자녀들을 짐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주께서 잠시 맡겨 주신 기업인 자녀를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진정한 상급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 부모로써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애씁니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자녀를 통해 나의 못다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울 뿐이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은 과녁/타겟을 향해 쏘기 마련입니다. 타겟하면 생각나는게 있으시죠! 성경에서 죄[하마르티아: missing the target]는 타겟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면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도 수중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역시 젊고 어리죠. 수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그들이 장성해서 수중에서 떠난 화살이 되면, 우리가 어찌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야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많은 자식은 많은 기도를 만들고, 많은 기도는 많은 복을 가지고 온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 "당신은 활이며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쏘아지는 살아 있는 화살입니다. 그 활을 쏘는 분의 손길 아래서 당신이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 쏘아지는 살아 있는 화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인 활이 스스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활을 쏘는 분의 손길 안에서 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멀리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구부러짐, 즉,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사랑과 덕과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어느덧 2021년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가정, 학업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지켜보시려고 하셨습니까?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바라기는 2021년 남은 날들은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업,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참된 심과 평안함이 여러분 중심에 항상 계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